

유예의 1년, 탐색의 방법을 배우다

대학에 오기 전, 내게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질문이 있었다. 너의 꿈은 무엇이나는 물음이었다. 익숙할 만큼 반복되었지만 나는 번번이 답을 피했다. 꿈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래는 본래 불확실하니 지금 당장 고정하는 일은 현명하지 않다고 스스로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입시는 전공 선택을 요구했다. 어른들은 대학 전공이 곧 직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전공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결국 어떤 전공이 나를 한 발 앞으로 밀어줄지 고민해야 했다. 처음에는 무난한 길이 떠올랐다. 경영학은 폭이 넓고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 길이 진짜로 나에게 맞는가를 묻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다. 나는 평소 게임을 즐기고 영상을 자주 보며, 글을 쓰는 시간을 좋아한다. 주변에서는 문예창작이나 미디어 관련 분야를 권했다. 일리는 있었지만 하나의 의견만으로 전공을 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본교의 학부제가 눈에 들어왔다. 1학년에는 전공을 확정하지 않고 2학년에 선택하는 제도는 꿈을 아직 문장으로 다듬지 못한 나 같은 학생에게 유예의 시간을 선물하는 제도처럼 보였다. 나는 그 유예를 기회로 삼고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에 입학했다. 이 학부에서는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 영미언어문화, 행정학 가운데 하나를 2학년에 확정한다. 수많은 선택지가 세 갈래로 정돈되자 판단이 오히려 선명해졌다. 각 전공이 약속하는 배움의 결과와 그 뒤의 길을 떠올리며, 나는 나만의 선택 기준을 세웠다. 첫째, 내가 오래 즐길 수 있는가. 둘째, 배움이 사회와 만나는 지점이 분명한가. 셋째, 직접 만들고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은가. 기준이 생기자 비교할 눈이 생겼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과목 구성과 과제 방식, 산출물의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판단은 더 또렷해졌다. 비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전공박람회에서는 각 전공의 커리큘럼과 산출물 사례를 직접 보았다. 영미언어문화 전공 부스에서는 텍스트를 깊게 읽고 쓰는 훈련의 밀도를 들을 수 있었고 행정학 전공에서는 정책을 수치와 제도로 번역하는 과정의 매력을 접했다.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 전공 부스에서는 기획서와 시놉시스, 카피와 보도자료가 실제 작품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했다. 부스를 돌며 받은 브로슈어에 과목명과 과제 유형을 표기하고, 내 기준과의 적합도를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해 두었다. 전공명보다 과목과 과제가 내 하루를 바꾸며 흥미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감각이 생겼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거대한 선택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연습문제의 연속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실감했다. 전공박람회 이후에는 환경동행 멘토링에도

참여했다. 멘토는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세 가지 고르고 왜 좋아하는지 문장과 장면 단위로 분석해 오라는 과제를 주었다. 내용, 연출, 구성, 톤과 매무새를 나눠 적어 보면 취향의 핵심이 보인다고 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점은 좋아한다는 감정의 밑바닥에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장면에서 왜 웃었는지, 어느 문장에서 울컥했는지 언어로 옮기자 막연함이 줄었다. 감탄이 해석으로 바뀌는 경험은 전공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다. 내가 좋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취향을 말로 정의하는 일은 손에 잡히지 않던 나침반을 눈앞에 꺼내 놓는 일과 같았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쓰기 프로젝트도 내 탐색에 힘을 보탤다. 총 6회차, 10명이 모여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빛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나를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략할지, 어떤 기억부터 꺼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매주 쓰고 고치면서 문장이 제 형태를 찾아갔다. 수정을 거칠수록 문장은 길어지기보다 짧아졌고 그 짧음이 오히려 명확함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여섯 주가 끝났을 때, 우리 손에는 각자의 얇은 책이 쥐어져 있었다. 한 권이라고 부르기엔 겸손한 두께였지만, 그 작은 결과물은 꾸준함의 증거였고 탐색의 과정이 공허하지 않다는 확실한 표식이었다. 완성본을 받아 들고 도서관 문을 나올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시작한 문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을 얻었다. 캠퍼스 안팎의 활동도 탐색의 일부였다. 교내 행사 취재를 도우면서 보도자료와 기사 작성의 차이를 배웠고 현장에서 들은 말과 종이 위 문장 사이의 간극을 느꼈다. 같은 내용도 목적과 독자에 따라 문장의 호흡과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촬영과 편집을 곁들여 카드뉴스를 만들면서는 정보와 서사의 균형을 고민했다. 수치를 넣으면 신뢰가 올라가지만, 수치만 나열하면 독자의 감정이 멀어진다. 이 균형을 잡는 일이 내가 오래 하고 싶은 일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칭찬은 동력이 되었고 비판은 방향을 수정하는 신호가 되었다. 나를 방어하던 자세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문장을 방어하는 자세로 바뀌었을 때, 글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러나, 전환점은 작은 실패에서 찾아왔다. 학기 중 과제로 제출한 글이 있다. 장면 묘사에 열중한 나머지 문장마다 비유를 엮었고, 단락마다 감정을 눌러 담았다. 그러나 피드백은 한결같았다. 독자가 따라갈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표현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야기가 오히려 흐려진다는 역설을 마주했다.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 뒤, 같은 소재를 정보와 결론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제출했다.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전달이 먼저, 표현은 그다음이라는 우선순위가 생기자 글의 방향이 잡혔다. 이 경험은 전공 선택의 기준

에도 반영됐다. 배움이 멋보다 효용에 닿아야 한다는 조건을 조용히 추가했다. 이후로 나는 문장을 쓸 때마다 목적, 근거, 효과를 적어 보는 습관을 들였다. 그 삼항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우아한 문장이라도 미련 없이 덜어 냈다. 전공탐색투어에서는 교내 여러 수업을 참관했다. 문학 수업의 토론은 질문으로 시작해 예시와 반례로 이어졌고 결론에 닿을 즈음 내 노트에는 별표가 늘어났다. 미디어 실습실에서는 장비 연결과 파일 포맷 정리 같은 사소한 단계가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행정학 강의실에서는 정책 보고서가 가설, 자료 수집, 분석, 제안의 순서를 어떻게 지키는지 배웠다. 서로 다른 교실을 오가며 느낀 점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문제를 바라보는 틀과 작업의 리듬을 배우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글과 기획의 리듬이 손에 맞았다. 말과 숫자를 오가며 의미를 묶어 내는 일이 즐거웠다. 시를 읽는 마음으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읽는 눈으로 문장을 다시 읽는 연습이 조금씩 익어 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는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 전공을 선택했다. 글과 스토리, 매체와 기획이 만나는 지점에서 배움을 계속하고 싶었다. 내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었다. 이 전공의 커리큘럼은 다양한 장르 글쓰기와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기획과 홍보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팀 프로젝트와 피드백 루프가 촘촘했다. 내가 세운 기준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선택의 이유가 취향에만 머물지 않도록 과정과 증거를 곁들였다는 점도 스스로에게 중요했다. 전공은 이름이 아니라 훈련의 집합이며, 훈련은 결국 태도를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 계획이다. 2학년에는 서사 구조, 논픽션 글쓰기,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목을 중심으로 기초를 다질 생각이다. 과목 과제와 별개로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학기마다 최소 세 개의 결과물을 축적하려 한다. 한 개는 순수 창작, 한 개는 정보 전달, 한 개는 홍보 기획 성격으로 나눠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3학기에는 카피라이팅과 홍보 전략을, 4학기에는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리터러시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글의 내용과 전달을 가로지르는 기획 감각을 키우기 위해 경영학의 기초 과목을 교양으로 병행할 것이다. 수치를 읽고 가설을 세우는 훈련은 앞으로의 제작과 홍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한경동행 멘토링은 계속 참여하며, 후배 멘티에게 내 경험을 환원하는 목표도 세웠다. 질문 받는 입장에서 답하는 입장으로 배움을 순환시키는 경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기 중에는 작은 루틴을 지키려 한다. 매일 아침 20분은 읽기, 낮에는 수업과 과제, 저녁에는 생산을 배치한다. 주 1회는 캠퍼스 행사나 강연을 찾아가 한 단락이라도 기록을 남긴다. 월말에는 결과물과 노트를 모아 스스로 평가표를 작성한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다음 달에는 어떤 가설로 개선할지

적는다. 탐색이 습관이 되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더라도 두려움은 줄어든다. 유예의 1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관찰과 수정의 시간이었고 이 리듬을 2학년 이후에도 이어 가고자 한다. 필요할 때는 멈춰 서서 질문하고 때로는 돌아가며 다시 짚을 것이다. 그 반복 자체가 나의 방법론이 되었다. 일상의 작은 계기들, 이를테면 수업의 한 문장, 복도에서 본 전시물, 동아리방의 대화가 다음 글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도 그 사이에 배웠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다만 확실해진 것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대신 탐색의 방법을 배웠다. 기준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작은 시도와 피드백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이터다. 이 방법을 알고 나니, 꿈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더 나은 문장으로 계속 고쳐 쓰는 문서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전공은 그 문서를 더 잘 고쳐 쓰기 위한 언어와 도구를 제공한다. 오늘의 문장이 내일의 문장을 낳고 그 문장이 다시 나를 데려갈 자리를 만든다. 지금 나는 1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다. 곧 2학년이 되어, 1년 동안의 고민을 선택이라는 결과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지만, 두 감정은 이제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나는 질문하고 탐색하고 만들어 볼 것이다. 그 반복 속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한 내 문장을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언젠가 누군가의 하루를 단 한 문장으로 따뜻하게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의 첫 장을 이곳에서 또렷하게 펼쳐 보이려 한다.